



Q&A로 풀어본 PO 2차전 클래스

불 붙은 양팀 방망이...키움 불펜이 더 강했다

김동준 제의 계투진 전원 임무완수
김규민 상승세...키움 하위타선 폭발
로맥·한동민 광...SK 홈런공장 가동

Q=양 팀 선발투수의 피칭부터 되짚어 보자. A=키움 최원태와 SK 양행 산체스 모두 4이닝만 소화하고 물러났다. 최원태는 4안타(2홈런) 1삼진 4실점, 산체스는 삼진 6개를 속아냈지만 10안타(1홈런) 6실점(5자책점)으로 두들겨 맞았다. 최원태는 3-3 동점을 만든 직후 4회말 실점을 막아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박수받을 만했지만, 6-3 역전에 성공한 5회 주자 2명을 내보내며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산체스는 2회까지만 삼진 4개를 속아내는 등 완벽한 투구를 펼쳤지만 3회부터 포심패스트볼(포심)에 완벽하게 포인트를 맞춘 키움 타자들의 노림수에 당했다.



키움 김규민이 1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개의 2루타로 2타점을 올리며 타선을 이끌었다. 그는 2차전 MVP를 수상했다. 인천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다소 분위기를 타는 유행인 김규민의 상승세가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Q=키움의 투수교체 타이밍이 이번 PS 최고의 이슈 중 하나다. 2차전에선 어땠나. A=투수교체는 결과론이다. 1차전에 등판하지 않았던 김동준이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1실점한 게 아쉬웠지만, 나머지 계투진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냈다. 김성민~안우진~김상수~조상우~한현희~오주원의 7명은 모두 20구 이내로 임무를 완수하며 3차전 등판에도 문제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키움 벤치의 과감하고 변화무쌍한 불펜 운용은 투수들에게 '누구든 전정터에서 힘을 보탬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된다. '보직 파괴'가 아닌 '전원 필승조화'라는 말이 딱 맞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풍부한 계투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감독의 역량인데 그 점에서 결정권자인 장정석 감독의 과감한 판단은 박수받기에 충분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Q=이번 펼쳐진 올 포스트시즌(PS) 6경기 와 다르게 화끈한 타격전이 벌어졌다 A=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양 팀 타자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SK는 특유의 팀 컬러인 홈런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중심타자 제이미 로맥(2홈런 2타점)과 한동민(1홈런 4타점)이 6타점을 합작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키움은 상·하위타선의 조화가 돋보였다. 6, 7회에 포진한 김용빈과 김규민, 테이블세터 서건창~김하성이 적재적소에 타점을 올렸다. 무엇보다 양 팀 타자들 모두 타구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남은 시리즈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다. 단기전에서 결정적인 타점으로 승리에 기여하면 자신감은 급격히 상승한다. 키움 입장에서

승장·패장 LIVE

“20이닝 연속 마스크 쓴 이지영 최고”



●승장 키움 장정석 감독=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잘 안돼서 힘든 경기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선수들이 땀 흘려서 경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무래도 투수 쪽 부분이다. 계속 위기가 왔고, 실점했고, 역전 당했다. 그럼에도 조상우, 한현희, 오주원이 잘 해준 덕분에 잘 끝낸 것 같다. (최원태가 PS 2연속경기 부진했다) 평소 최원태의 공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경기 전에도 브랜드 나이트 투수코치와 얘기했는데, 컨디션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 교체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 (대타 송성문이 결승타를 때려냈다) 박동원과 송성문 사이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문승원이 좌우타자 상대로 편차가 큰 선수는 아니다. 송성문이 전날 문승원을 상대해본 걸 고려한 선택이었다. (이지영이 포수로 PO 20이닝 연속 소화했다.) 그냥 '최고'라고 써 달라. (제리 샌즈가 1경기 4삼진을 기록했다.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없다. 잠잠해도 결정적일 때 방을 쳐주는 선수다. 준PO를 앞두고 주사 치료를 받았다. 농담 삼아 “어디 하나 부러질 때까지 안 뺄 거다”라고 하니 “앰블런스에 실려가기 전까지는 빼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말이라도 고마웠다. 다들 정신력으로 버텨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 (원정에서 2승을 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맞는데, 비장 끝에 섰더라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그저 이동일 하루 잘 쉬고, 3차전 준비를 잘 하는 것만 생각 중이다. 찬스가 온다면 전력으로 하겠다.

“문승원 고전...운이 따르지 않았다”



●패장 SK 염경엽 감독= 선발투수 양행 산체스가 주자 있을 때 실투가 잦았다. 상대 타자들이 그걸 놓치지 않아 어려웠다. 하위타선을 봉쇄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산체스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는?) 구위가 나쁘지 않아 교체 타이밍을 5회 이후로 생각했는데... 김하성 선수에게 한 방 맞은 게 컸다. (문승원이 2연속경기 고전했는데) 문승원은 전날도 구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했다. 문승원이 막았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운이 안 따른 거라고 생각한다. (3차전 선발투수는 공개 가능한가?) 헨리 소사가 나간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큰 부상 피한 김하성...곧바로 PO 첫 홈런 신고

(키움)

4회 홈 세도 중 포수와 충돌 아찔
이어서 5회 달아나는 '액땀' 투런



키움 김하성이 1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5회초 무사1루 상황에서 2점 홈런을 날린 뒤 기뻐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4회초 이정후의 안타에 홈으로 파고들다가 태그아웃 된 뒤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김하성. 그는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나서 홈런을 폭발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24)이 큰 부상을 피한 뒤 자신의 플레이오프(PO) 첫 홈런을 신고했다.

김하성은 1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PO 2차전에 2번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전했다. 첫 타석을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팀이 0-3으로 뒤진 4회에 선두타자로 나섰다. 우중간을 완벽하게 가르리는 2루타로 단숨에 득점권에 위치해 추격 득점에 발판을 마련했다.

찬스는 곧바로 이어졌다. 후속타자 이정후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짧은 안타를 때렸다. 김하성은 전력을 다해 3루로 향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3루 조재영 코치가 팔을 계속 돌렸다. 김하성은 조 코치의 사인을 보고 그대로 홈까지 노렸다. 짧은 안타였기에 적시타로 연결되기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김하성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중견수 김강민은 공을 잡은 후 그대로 홈을 향해 강하게 던졌다. 송구는 웬바운드로 정확하게 포수 이재원의 글러브로 들어갔다. 결과는 여유 있는 태그아웃이었다.

이 상황에서 김하성은 큰 부상을 당할 뻔했다. 왼 어깨가 이재원의 무릎에 크게 충돌했고, 한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자칫 슬

라이딩 위치가 조금만 달랐다면 머리와 목에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키움은 곧바로 홈 충돌 방지 규정을 이유로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디오판독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재원이 포구 후 홈플레이트를 막아섰지만, 송구의 진행방향과 포구 타이밍을 봤을 때 홈 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큰 부상이 아니었기에 김하성은 이후 계속 경기를 소화했다. 그리고 팀이 4-3으로 앞선 5회 달아나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 양행 산체스의 시속 148km짜리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자신의 PO 첫 홈런을 신고하며 이날 '강한 2번타자'로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탬다.

인천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전설의 외인 브룸바 “영웅이여, 질주하라!”

최익래 기자의 피에스타

기량, 임팩트, 우승 청부능력, 인성까지... 외국인 선수를 판단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다. 그 중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클리프 브룸바(45)는 최고 수준이다.

2003년 현대 유니콘스에 합류한 그는 그해 70경기 타율 0.303, 14홈런을 기록하며 연착륙했다. 2004년에는 더욱 진화한 모습으로 132경기에서 타율 0.343, 33홈런, 105타점을 기록했다. 그해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WAR)는 8.37. 2015년 에릭 테임즈(NC 다이노스)의 WAR 10.71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다. 현대는 브룸바를 앞세워 2003~2004년 한국시리즈(KS) 2연패

에 성공했다.

이후 일본프로야구 무대에 진출했던 그는 2007년 현대로 복귀해 왕조의 마지막 외인타자로,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히어로즈(현 키움) 창단 첫 외국인 타자로 함께 했다. 2009시즌을 끝으로 KBO리구를 떠난 그는 멕시코 리그에서 잠시 뛰 뒤 2011년 유니폼을 벗었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히어로즈 시절 브룸바의 통역 업무를 맡았다. 김 단장은 “보기 드문 신사였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새 외인 오면 본인이 앞장서 이를 설명하곤 했다”고 추억했다. 어떤 기준으로도 최고 외인 반열에 포함될 만하다.

스포츠동아는 은퇴 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오클라호마 퓨얼’이라는 야구 아



브룸바

카데미를 8년째 운영 중인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매체임을 알리자 그는 먼저 “히어로즈가 플레이오프(PO)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다. 인터넷으로 KBO리그 소식을 꾸준히 접한다”고 밝혔다. 현대 시절 함께 했던 심정수와도 미국에서 야구선수 아들들을 둔 학부모로 종종 만났다고 했다. 그가 여전히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건 팬들과의 기억 때문이다. 브룸바는 “동료 선수들과 팬들은 나를 극진히 대우해줬다.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없었다”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무 것도 몰랐는데, 모두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줬다. 그 덕에 야구장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브룸바는 야구 인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현대의 KS 2연패를 꼽았다. 프린트

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구성했고, 운이 좋게도 그들과 함께한 덕에 커리어에 화려한 발자국을 찍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세 아들 케이든(16), 카슨(13), 캄든(9)도 야구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브룸바는 자신의 아이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현대의 우승 청부사’ 브룸바에게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PS)의 차이를 물었다. 그는 “PS까지 올라온 건 팀 구성원 모두의 땀과 목표의식 덕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현장에 던지고 와야 한다”며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타구를 캐치하는 평범한 일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O 1차전에서 키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역시! 영웅군단의 질주가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브룸바는 여전히 KBO리구를 기억하고 있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